地理學論叢 第25號(1995. 2), 1-18.

大學의 立地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영향분석*

朴英漢**

< 차 례 >

Ⅰ. 序 論
Ⅱ. 大學과 地域發展
Ⅲ. 安東大學과 安東地域의 개관
1. 안동대학의 개관
2. 안동지역의 개관
Ⅳ. 大學의 敎育機能과 地域發展
1. 지역교육기회와 안동대학의 역할
2. 지역노동시장과 안동대학의 결합
Ⅴ. 大學의 硏究機能과 地域社會의 結合
1. 대학의 연구기능과 지역경제의 결합
2. 대학의 연구기능과 지역문화의 계발
Ⅵ. 大學의 社會的 봉사기능과 地域社會
Ⅶ. 結 論

主要語 : 대학과 지역발전, 지식 중심지 전략, 고급인력의 전이, 지식/기술의 전이, 봉사기능의 전이

Ⅰ. 序 論

본 연구는 안동대학교를 사례로 하여 지방에 입지하는 대학이 그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학과 대학생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학 교육은 대중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46년 서울대학교가 4년제 종합 대학교로 발족한 이후 1948년에 이미 고등 교육기관의 수는 48개에 달하게 되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수는 1980년에 85개로 증가되었으며 1990년에는 107개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수많은 대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서, 대학은 전문 인력의 양성 기능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고급 연구인력과 시설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기능도 수행한다. 최근에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 정책은 대체로 제조업의 유치를 통하여 고용 증대와 지역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과 지역의 유기적 결합이 결여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의 지역개발 전략은 혁신 주체자로서의 대학 및 연구소와 기업을 동시에 입지시켜 이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소위 '지식 중심지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역과 교육계획이 분리되지 않고 복합된 지역 교육계획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화 수준이 낮고 발전단계가 뒤떨어진 주변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입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지역성장을 위한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스스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여건 하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격리된다면, 양자는 존립하기가 힘들게 될 수밖에 없

* 본 논문은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조성비('88자유공모과제)의 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과 대학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학이 지역사회에 지적 자산을 어떻게 이전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에 의한 지역의 자발적 경영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분교가 급속히 설립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대학과 지역발전 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희소한 편이다. 유일하게도 지방대학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돋보인다. 林承達(1989)교수는 강릉대학을 사례로 지방대학의 파급효과를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릉대학의 규모가 영세하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례지역 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과 분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분교가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입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첨단산업의 육성과 연관지은 연구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전략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활기를 띄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수많은 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의 입지 선정을 비롯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 또는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발전 추진력으로서 중요성을 대학이 보유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하나의 틀 속에 묶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대학의 입지 선정과 교육기회에 관한 연구가 Geipel(1965)과 Geissler(1965)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학자들의 관심사로 등장함으로써 이들은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학예산의 지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의 소비지출에 관한 분석이 주로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Brösse & Emde(1977), Küppers & Sonntag(1977), Leib(1977)등에 의한 경험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더불어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경제적·사회적 연계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Mayr(1979), Fürst(1984), Giese(1987b) 등의 논문이 있다. 1980년대말 이후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기업간의 연구 및 기술 전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Ott, 1993). 나아가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대학도 지역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Giese, 1987a).

본 연구는 사례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기회 및 지역노동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변부지역에 입지한 대학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대학과 안동지역을 답사하여 문헌을 수집하고 현지주민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Ⅱ. 大學과 地域發展

대학은 고도의 지적 문화를 계승 전달하고 창조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학은 국가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수와 연구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2대 기능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사회

봉사도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부과되고 있다(金鍾喆, 1979). 그러므로 대학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파급효과를 정립한 이론은 대체로 인간 자본론에 의한 교육경제학적 접근론과 근대화를 위한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둔 근대화 이론으로 대별하고 있다(裵天雄, 1987).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林承達, 1989). 경제적 효과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본의 공급을 통한 지역소득의 창출과 대학의 예산지출을 비롯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소득의 증대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육경제학적 접근은 대학을 단순히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노리는 성장산업 또는 수출산업으로 보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비롯하여 이에 따른 소득의 유발효과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정착과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지역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文化傳承 機能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社會革新 및 統合機能 등을 통한 기여이다.

江陵大學의 경우(林承達, 1989), 대학의 설립이 일천하고 규모가 영세하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학의 예산집행과 학생들의 소비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나아가서 그 지역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공공기관 등의 자문활동에의 참여도를 포함한 사회 문화적 기여도는 매우 낮다. 특히 비거주 교수 및 학생일수록 참여의 정도가 더욱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분방한 대학생의 소비풍조의 만연과 향토의식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의 신설대학의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한 Ott(1993)는 대학의 지역적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첫째, 대학은 지역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일정 지역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 대학 졸업자의 이출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졸업자의 질적 구조는 지역경제 및 지역노동수요에 상응한다.

둘째, 대학의 신설은 일정 지역의 교육기회를 향상시키고, 그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대학 진학자의 유출을 어느 정도 보류시킬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한 주변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대학과 그 구성원의 지출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그것은 지역의 구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자극제로 작용한다.

넷째, 대학의 입지는 도시계획의 문제로 등장한다. 대학건물의 건축과 토지구입 그리고 도로 건설을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시설 비용이 증가함으로 대학의 신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도시계획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대학은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대학의 입지와 공업화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일반화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업에서는 대학의 존재가 공업화의 여러 요인 중에서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실제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문적 도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대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와 응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기능은 일정 도시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보육기의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의 지역경제에의 轉移는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Wagner, 1987). Becker(1994)는 지역 입지 요인으로서의 대학의 지식전이(Wissenstransfer)를 개인적 전이(Personaltransfer)와 정보전이(Informations-transfer)로 대별하고 있다. 전자는 그 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그 지역소재 대학의 졸업자인 전문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후자는 기업이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전문지식을 전이 받거나, 기업인력의 재교육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대학의 고급인력은 그 지역에 자리잡은 기업의 성취력과 혁신력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고급인력이 배출되는 곳에는 양질의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 주요 대학과 기업이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업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상업화하려는 의도에서 대학과 인접한 곳에 입지한다.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혁신효과(Innovationseffekte)를 발휘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통합기능이 강조되고 있다(Mayr, 1993). 이것은 대학의 사회적 봉사기능으로서 대학병원을 위시하여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체육시설로부터 연구단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설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대학은 지역주민과의 공고한 결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正體性과 地域像의 형성자(Imageträ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대학 및 그 구성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졸업자의 취업을 통한 전문인력의 공급, 산학협동에 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공급, 그리고 대학기관의 지역사회에의 봉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상기의 연구성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조하고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수·연구·봉사의 3대 역할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대학과 지역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한 지역발전의 틀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틀을 중심으로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대학이 혁신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자극제(Impulse)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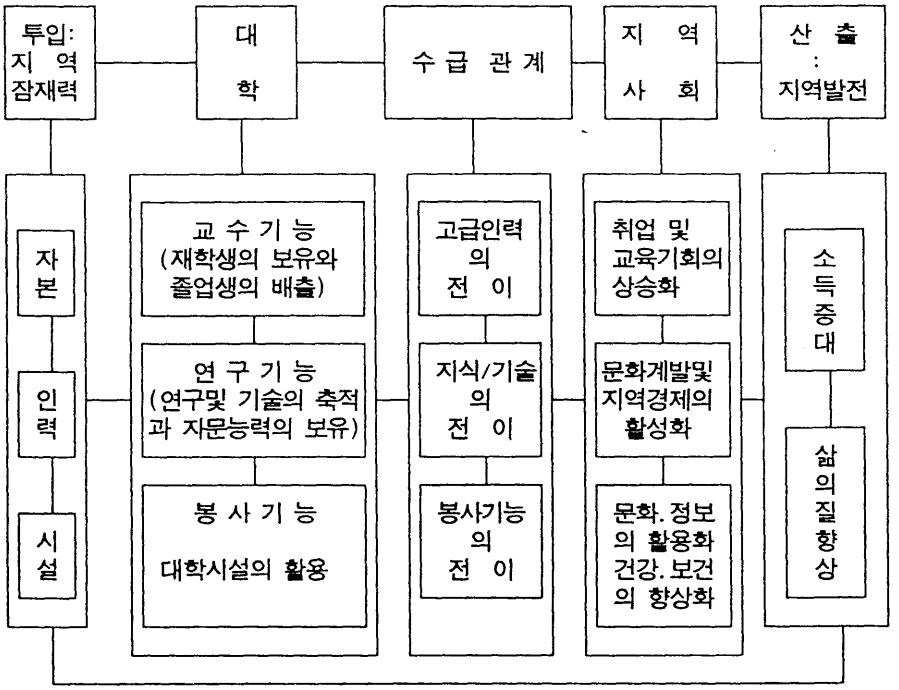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Ⅲ. 安東大學과 安東地域의 개관

1. 안동대학의 개관

안동대학교 통계연보(1993)와 안동대학교 요람(1992)에 의하면, 안동대는 1947년에 안동사범학교로 출발하여 오다가 잠시 안동초급대학교로 운영되었으며, 1965년에 교육대학으로 재편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인문사회계열과 예능계열의 8개 학과로 구성된 국립안동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신설되었다. 그 이후에도 학과 증설이 계속되었으며, 1985년까지는 화학과와 생물학과를 제외하고는 주로 인문사회계열 및 사범계열의 학과 위주로 교세를 확장하여 왔다. 1986년 이후부터는 안동대의 발전은 주로 이공계열 학과의 창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예·체능 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방의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생활과학대학이, 1994년에는 사범대학이 신설됨으로써 6개 단과대학에 총 36개 학과가 교수와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학은 1985년까지는 주로 인문·사회계 중심이던 것이 1987년부터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인근지역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사과정이 설치된 학과 수는 16개에 불과하며, 석사학위 수여 인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이 개설되지 않아서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이 미약한 편이다.

학과 이외에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부설 연구소는 1979년에 최초로 설립된 「안동문화연구소」를 위시하여 총 7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이 대학교에는 도서관, 박물관, 역동서원을 비롯한 각종 부속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정원은 1993년 말 현재 4,800여명에 달한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수는 171명이며, 조교를 포함한 교원 수는 218명에 이르고, 대학행정직을 합한 직원 수는 총173명이다. 1993년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포함한 안동대학교의 총세출액은 약 150여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에 대비한 학생 부담금은 52%, 일반회계와 학생부담액을 합한 총계에서 학생부담비율은 약 32%를 차지한다. 1992년 안동시의 총 세출액은 약 5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안동통계연보, 1993), 안동대의 재정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안동대학교는 안동시 송천동의 산지사면에 총 23만여 평의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안동대는 1994년에 「안동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94-2003)」을 수립하여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안동대는 교수·연구·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본기능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학이 짊어질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발전 방향의 설정에는 대학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동의 지역 특성인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안동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동시에 이 지역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최근의 공업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할 수 있는 방향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안동지역의 개관

대구를 제외한 경북지역은 남북으로 나누는 대권역과 좀더 세분된 중권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대권역은 북부의 산림지역과 남부의 대도시 주변 산업지역으로 구분되는 2대권으로 나뉘고, 중권역은 북부 산림지역, 남부 대도시 주변지역, 동부 해안지역, 서부 내륙지역의 4중권으로 나뉜다(문태현, 1993). 표 1은 권역을 구성하는 시·군을 표시한 것이다.

편의상 2대권은 경북 북부지방, 경북 남부지방으로, 중역권은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편, 안동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은 북부권에서 영주시와 영풍군, 봉화군, 예천군이 제외된 반면 군위군이 첨가되어 1市 5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부권은 결코 오늘날과 같이

표 1. 경북의 지역구분

권역 구분		포 괄 범 위	비 고
대권역	경북북부지방	안동시,영주시,점촌시,상주시,봉화,울진,영풍,예천,문경,상주,의성,안동,청송,영덕,영양,울릉도	4市 12郡
	경북남부지방	포항시,구미시,경주시,영천시,경산시,김천시,영일,경주,영천,경산,군위,금릉,청도,달성,칠곡,고령,성주,선산	6市 12郡
중권역	북 부 권	안동시,영주시,봉화,영양,청송,안동,의성,영풍,예천	2市 7郡
	남 부 권	영천시,경산시,영천,경산,청도,달성,고령	2市 5郡
	동 부 권	경주시,포항시,울진,영덕,영일,경주,울릉도	2市 5郡
	서 부 권	구미시,김천시,점촌시,상주시,문경,상주,선산,군위,금릉,칠곡,성주	4市 7郡

뒤쳐진 지역이 아니었다. 안동은 고려시대에 안동도호부로 승격되어 행정의 주요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근거지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과정에서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개발이 뒤진 주변부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4市 12郡으로 구성된 경북 북부지방은 경북면적의 약 56%에 달하나 인구는 37%에 불과하다. 안동이 직접 속한 북부권은 경북 면적의 35%,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이다.

지난 20년(1970-1990)간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영주·영풍을 제외한 북부권의 군부지역은 40%이상 인구가 격감하였고, 인구밀도도 100인 이하로 떨어진 대표적인 과소(過疏)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인구격감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의 각종 서비스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여성화의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동의 인구도 1970년에 약 8만에서 1980년에 10만, 1990년에 약 12만으로 전국 평균 도시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의 추진력으로서의 구실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권은 전통적으로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널리 재배되는 밭작물은 고추와 담배이다. 특히 영양의 고추는 품질과 생산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나 고추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지역은 대표적인 양잠 지역이었으나 노동력의 부족과 수출의 부진으로 쇠퇴하였다. 그후 경북 남부지방의 공업화로 사과재배지가 북상하여 새로운 사과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북부권의 공업발달은 매우 미약하다. 이 지역은 경북전체 제조업 종업원 수의 3.6%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도 남부권의 121명에 비하여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명이다(경북통계연보, 1992). 안동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내의 제조업은 경공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다. 음식료품이 약 37%를 차지하고 목재, 제조업,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각각 10%정도를 나타낸다(안동상공연감, 1993). 안동시와 영주시를 제외한 군부의 재정 자립도는 20%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희재, 1993). 그러나 이 지역은 안동댐과 임하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시 타지역과의 접근성도 유리해지므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 문화재 현황

구 분	포항 영일	구미 선산	경주 시/군	안동 시/군	영천 시/군	의성
문화재 총점수	26	38	252	210	50	27
민 속 자 료	3	4	18	59	6	0
무 형 문화재	1	0	1	6	0	0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1991.
참조: 문화재에는 지방문화재도 포함되었음.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전통적 문화유산이 누적된 지역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와 분별되는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창출하여 그 유산이 간직되어 있으며, 고려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동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조의 지배 이념과 가치관을 지탱해 온 유교문화

의 중심지이며 성리학의 본고장으로 발달하면서 조선시대의 정신문화와 학문의 산실 역할을 하여 왔다(임재해, 1993).

표 2에서 보듯이 안동에는 수많은 불교 및 유교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정수를 알 수 있는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가 산적해 있다. 또한 안동시에는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연구회가 조직되어 지역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Ⅳ. 大學의 敎育機能과 地域發展

1. 지역교육기회와 안동대학의 역할

경북의 북부권에 입지한 4년제 대학은 안동대학교와 영풍군 소재의 동양공과대학교가 있으며, 또한 안동과 영주에 각각 1개의 전문 대학이 있다. 경북의 1993학년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50.1%에 달한다(지역 통계연보, 1994). 이에 비하여 경북 북부권의 대학 진학률은 경북의 평균치 보다 훨씬 미달하는 수치를 보인다. 북부권내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진학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안동시가 40%인데 비해 농촌지역인 군부에서는 10%이하의 매우 낮은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경북교육통계연보, 1994).

일반적으로 교육기회는 일정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활동공간과 행동공간에 따라 교육행동의 차별성이 크다(Geipel, 1965).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지역의 농가인구율이 높고 지방세 부담액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기회가 낮은 현상을 보였다. 또한, 주변부 낙후지역의 교육기회가 더욱 낮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기회 격차도 주변부 낙후지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朴英漢, 1984). 교육기회와 소득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주거지가 통학권 범위 내에 있다면 교육비는 훨씬 적게 든다. 강릉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주거 형태가 자가인 학생은 약 4만원, 하숙에는 21만 4천원에 달한다(林承達, 1989). 이처럼 대학의 입지는 일정지역내의 교육비용의 절감효과를 유발시켜 교육기회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대학교는 1979년에 300명 미만의 신입생을 받아들인 이후 모집정원이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1989년에 1,080명에서 1991년 1,160명, 1993년 1,230명, 1994년에는 1,355명으로 늘어났다. 이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이 끝나는 연도인 2003년의 입학정원은 2,545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안동대학교 장기발전계획, 1994). 안동대학의 학생 생활연구소에서는 신입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생지도연구(1994)'에 의하면, 1993년 입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55.8%를 차지한다. 신입생의 주성장지가 읍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이 43.6%, 중소도시가 41.8%인 점에서 성장에서 소외된 지방민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미만이 54.9%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이 많은 편이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이 중졸 및 그 이하라는 응답율이 50.1%를 차지한다. 보호자의 직업이 사업가와 회사원이 28.5%인데 비하여 농업인 경우가 30%로 가장 많다. 이처럼 농민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에게도 교육기회의 문호가 넓게 열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안동대학은 주변부 지역의 교육기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 및 교육수준을 나타낸 표 3에 의하면, 보호자의 직업 중에서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이농으로 인한 농민층의 감소와 더불어 외지인의 신입생 비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부친의 교육수준은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가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생의 출신지역의 분포는 대학의 입지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 및 교육수준 (%)

연 도	보호자의 직업 (농업 종사자의 비율)			부친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의 비율)		
	남학생	여학생	전 체	남학생	여학생	전 체
1993	27.3	33.5	30.1	53.6	45.8	50.1
1992	34.5	37.3	35.8	49.9	46.3	48.1
1991	35.2	32.0	33.6	49.6	43.8	46.7
1990	35.4	31.0	33.1	55.8	44.0	49.7
1986	54.5	35.7	45.1	71.3	52.2	61.7

자료: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각년도.

표 4는 안동대학교 신입생의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출신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경북북부권의 비율이 1989년에 무려 65.9%를 점유하던 것이 차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동권을 벗어난 경북지역의 비중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 1992년 현재 북부권의 신입생은 47.9%에 이르고, 그 외의 경북지역이 18%, 대구가 1.3%로 대구를 포함한 도내 학생 비율이 1989년에 80%를 상회하던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취학권은 국지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동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북부권은 신입생의 절대 다수를 공급하고 있다.

안동대의 소위 시내버스 통학권에 해당하는 안동시·군이 배출한 신입생도 해마다 30%에서 40% 이내 정도를 차지하나 감소경향을 띤다. 1992년 재학 중의 거주 형태에 관한 설문에서 자택이 35.6%(안동시·군 지역의 신입생은 32.1%)인 점을 감안하면, 안동시·군 이외의 학생들은 부모의 거주지를 떠나 안동에서 하숙, 자취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통학권의 범위를 벗어난 북부권을

표 4. 안동대학교 신입생의 출신지역 (단위: %)

출신지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대구·경북	북부권(안동권)	안동시·군	-	-	40.0	28.0	46.5	37.5	36.5	40.7	38.6	27.6	37.3	32.1	-	-	-
		기타 시·군	-	-	25.9	13.1	20.0	16.6	11.6	17.1	14.4	11.8	20.5	15.8	-	-	-
		소 계	-	-	65.9	41.1	66.5	54.1	48.1	57.8	53.0	39.4	57.8	47.9	-	-	-
	기타 경북		-	-	15.2	12.0	12.1	12.1	14.0	15.0	14.5	19.2	16.6	18.0	-	-	-
	경 북		-	-	81,1	53.1	78.6	66.2	62.1	72.8	67.5	58.6	74.4	65.9	45.5	72.9	57.6
	대 구		-	-	1.4	1.1	1.7	1.5	2.6	0.4	1.5	1.6	1.0	1.3	3.8	2.0	3.0
	대구+경북		-	-	82.5	54.2	80.3	67.7	64.7	73.2	69.5	60.2	75.4	67.2	49.3	74.9	60.6
서 울			-	-	2.4	9.2	2.4	5.7	6.5	1.5	3.9	4.1	2.5	3.3	8.1	2.4	5.6
기타 시.도			-	-	14.8	28.2	9.6	18.5	21.3	9.5	15.2	27.9	11.6	20.3	42.7	22.6	33.9
무 응 답			-	-	-	8.3	7.8	8.0	7.3	15.8	11.7	8.0	10.7	9.2	-	-	-
계			-	-	99.7	99.9	100.1	99.9	99.8	100.0	99.8	100.2	100.2	100.0	100.1	99.9	100.1

자료: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각년도.

포함한 경북지역의 신입생 수도 안동시·군출신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신입생들이 자신들의 고향 부근에 자리잡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ebler, 1984).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서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난다. 1992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46.6%인데 비하여 전체 여학생 중에서 북부권의 여학생 비중은 57.8%에 달하고, 북부권의 남학생은 39.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북부권에는 남자보다 여학생의 입학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동고교의 93학년도 졸업자 수가 487명인데 이 중에서 안동대 진학자가 44명인데 비해서 안동여고는 490명 졸업에 90명이 진학하였다(경북교육통계연보, 1994). 이와 반대로 나머지 경북지역을 포함한 다른 시·도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정 지역에 대학이 새로이 설립될 경우에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일정 지역내의 대학입지는 공간적 거리를 축소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등교육에의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은 사회적 거리를 완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Mayr, 1979, s57). 안동권내에서도 농민의 자녀와 함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의 자녀들도 상당수 진학하고 있다. 이것은 안동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기회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북부권의 신입생 비율이 감소한 대신에 외지로부터의 유입되는 신입생의 증가는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안동권 지역내의 대학진학 희망자가 외지로 진출하는 대신에 같은 수의 외지 학생이 진입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외지인들이 안동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소득이 낮은 주변부 주민들이 중심부 또는 발전된 지역으로 진학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지 학생의 유입은 안동권 주민들의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노동시장과 안동대학의 결합

안동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1983년에 처음으로 241명의 학사를 배출하였으며, 입학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졸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표 5. 안동대학교 계열별 졸업생 수 (단위: 명)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인문계	남	84	52	44	63	70
	여	110	93	97	121	125
사회계	남	142	137	158	184	141
	여	36	47	38	46	80
자연계	남	14	38	60	70	95
	여	58	81	150	212	251
예체계	남	45	63	58	73	67
	여	45	42	60	55	60
사범계	남	40	29	29	12	11
	여	70	41	41	46	43
총계	남	325	319	349	402	384
	여	319	304	386	480	559
	계	644	623	735	882	943

자료: 안동대학교 통계연보, 199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졸업생이 623명이던 것이 1993년에는 943명으로 늘어났다. 졸업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1990년에 약 절반 정도에서 1993년에는 약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1992학년도의 신입생부터 남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안동대학교 통계연보(1993)에 의하면, 199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49.9%에 달한다. 이 수치는 1994년 서울대학교 학사 졸업자의 취업률(45.8%)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대 학사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이 31.4%인 점(서울대 통계연보, 1994)과 안동대의 2%인 점을 비교하면 안동대의 취업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수입의 원천으로서 삶의 기본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 유지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을 노동시장에 공급한다. 따라서 취업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안동대학생들의 졸업후 희망하고 있는 진로는 취업이 71%를 차지하고 그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48%로 가장 높았다. 취업에 방해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출신대학(61%)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그 다음이 연고(22%)를 들었다(박재욱, 1989). 출신대학과의 연고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 (1993년 졸업자)
(단위: 명, %)

안동시군	경북북부권 (안동시군 제외)	경 북 기타지역	대구	도외 지역	총계
73 (21.2)	24 (7.0)	87 (25.4)	38 (11.1)	121 (35.3)	343 (100)

자료: 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안동대학교 총무과 통보 (1994. 11. 28).
참고: 무직과 기타의 자료는 제외하였음.

표 6은 안동대의 1993년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안동대 사무국에 의뢰하여 협조 받은 자료로서, 총 685명 중에서 취업자(자영업과 회사원)를 간추린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3년 2월에 졸업한 사람 중에서 취업자는 경북 북부권 28.2%, 경북 기타 지역과 대구 36.5%, 그 외의 지역에 35.3%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정상적인 졸업이었다면, 1989년에 입학하였을 것이나, 휴학과 복학 등의 학적 변동상황이 빈번함으로 인해 입학자와 졸업자의 수치 사이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편의상 1989년 입학생의 출신 지역과 비교하면(표 4 참조), 북부권 출신의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이 지역 노동시장에 직접 투여되지 못하고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타지방으로 이전하여 취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93년 졸업자의 59%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취업의 취약성이 개선되던지 여성 졸업자의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

대체로 주변부 지역의 전문인력을 자체 지역에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안동권은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는 '고급인력의 손실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학진학을 위하여 주변부 지역에서 중심부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후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적다. 이와 함께 외부지역 출신의 신입생이 교육을 마친 후 주변부 지역에서 이탈한다면, 이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도는 사라지고 두뇌 유출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외부 출신의 신입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변부 지역의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은 저하될 것이다.

안동대학 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교직원으로서 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안동권의 경제·사회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표 7. 교직원의 지역별 거주지 분포(1994년, 10월 현재)
(단위: %)

	안동 서군	기 타 북부권	기 타 지 역	계
교수	77.6	2.8	19.6	100.0
직원	96.4	2.4	1.2	100.0
계	86.8	2.6	10.6	100.0

자료: 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안동대학교 총무과 통보 (1994. 11. 28).

표 7은 교직원의 지역별 주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전체 교직원의 86.8%가 안동시·군에 거주하며, 10.6%는 북부권 이외의 지역에 거처가 있다. 사무직원의 대부분은 안동시에 거주하나, 교직원의 약 20%는 경북 기타 지역과 도외의 지역에 상주지를 두고 안동시에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고려한다면, 북부권에의 상주화가 바람직하게 보인다.

V. 大學의 硏究機能과 地域社會의 結合

지역발전은 지역 혁신력의 축적과 채택을 통해서 지역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산업화의 수준이 낮은 주변부 지역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을 개발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학이 혁신의 주체 자로서 기능하려면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대학이나 기업이 지역 내에서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면, 지역발전의 상승 효과는 발휘될 수 없다.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의 전이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에도 발생한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안동대학은 혁신의 센터로 구실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이·채택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기로 한다.

안동대학 내에는 36개 학과와 9개의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학생생활 연구소와 어학연구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대학의 기획연구실은 대학 홍보를 비롯하여 대학연구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및 부속연구소의 지원업무를 관장·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993년 이들 연구소와 대학에 지급된 총연구비는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서술은 안동대학교요람(1992 - 1993)을 참조한다.

1. 대학의 연구기능과 지역경제의 결합

안동 지역경제와 관련될 수 있는 연구소로 '안동지역개발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기술혁신의 전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안동지역개발연구소'는 1991년에 설립된 '새마을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1989년에 국립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관련기관과의 상호교류와 연계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표 8. 안동개발연구 논문의 주제별 분류

구 분	총논문수	지역개발	기후, 지질학	농학관련	여가, 체육	가정학관련
제1집(1990)	4(4)	4	-	-	-	-
제2집(1991)	7(3)	-	2(2)	2	2	1(1)
제3집(1992)	6(4)	2(1)	2(2)	1(1)	-	1
제4집(1993)	6(6)	4	-	-	1	1
제5집(1994)	7(7)	5	-	2	-	

자료: 안동개발 연구, 제1집-5집.
참고: ( )안은 안동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논문.

이 연구소는 1990년부터 '安東開發 硏究'라는 전문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0여편 중에서 안동지역권을 대상으로 한 것은 24편에 이른다. 농학과 관련된 주제들은 안동권의 산업발전에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이며, 그 밖의 안동 관련 논문들도 안동권의 실상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결합은 지역개발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가공·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1993)와 '경북도청 이전의 합리성 추구'(1992)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대를 꾀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자연과학의 순수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대학의 연구비는 물론 외부로부터 위탁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 1990년부터 매년 '기초과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평균 14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논문들은 아직까지 순수기초과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경제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연구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이 결여된 것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양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준비태세가 미비하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전문 영역과 연구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기초과학 연구소'에 의한 기초연구로는 전이와 채택 과정이 요하는 시기가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2003년까지의 발전계획에 의하면,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업환경대학 등이 신설되고, 산업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 환경연구소 등이 신설된다. 이러한 분야가 보완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지금의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어도 존속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도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이전받을 상황에 있지 않다. 안동권은 지역산업의 미발달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다. 지역 내의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료와 인력의 조달이 어렵고 지방 금융의 빈약성은 지방산업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 교통·통신의 미발달로 접근도도 낮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역사적 전통과 정신적 문화에 경도되어 타지역에 비하여 생산부문에 대한 의식구조가 적극적이지 못하다(南治鎬 외, 1990). 이것은 안동대학생과의 면담에서 안동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동지역의 보수성을 타파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심은 것이라는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복합요인의 작용으로 안동지역의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기술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과 지역사회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 안동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역시 대학연구자원의 필요성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 및 지방행정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모임'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2. 대학의 연구기능과 지역문화의 계발

안동지역은 전통적 문화와 교육이 뿌리내린 고장이다. 혁신 담당자로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계발과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력을 높여주고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배양한다. 지역과 문화의 결합은 '지역문화의 산업화'와 '지역산업의 문화화'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안동대학은 지역문화 계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 대학의 인문계열에는 한문학과와, 민속학과를 위시하여 사학과, 국어국문학과, 동양철학과 등이 설치되어 지역문화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문화 연구소', '퇴계학 연구소', '민속학 연구소' 등이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동문화 연구소'는 1969년 안동대학의 전신인 안동교육대학의 부설로 설립되었으며, 본 대학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1979년에 안동대학 부설 연구소로 개명되었고, 다양한 다학문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동문화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전문학술지인 '안동문화'는 교육대학에서 제7집까지 발간되다가 종간되었다. '안동문화'는 1980년에 안동대학 부설 연구소 기관지로 재탄생하여 1993년에 제14집이 간행되었다. 지역문화에 관한 꾸준한 연구의 결과, 1989년에 '안동문화연구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특집을 낼 수 있었으며, 1991년에는 '안동지역 문화예술의 현단계'라는 또 하나의 특집을 펼치면서 지역문화운동의 성과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退溪學 硏究所'는 퇴계 이황과 퇴계학파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1988년에 부설 연구소로 개설되었으며, 연 1회 '퇴계학'이란 학술지를 출간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民俗學 硏究所'는 전승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민속학의 본령을 정립하고 문화유산의 과학적인 관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매년 '民俗硏究'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의 연구성과물은 안동권내의 민속연구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 안동대학내의 문화에 관련된 유사 연구소를 통합하여 보다 큰 기구인 '안동문화 연구원'을 조직하는 것이 안동지역

문화연구의 체계화와 활성화에 유리하리라고 사료된다.

안동 문화연구의 성과를 수록한 자료 및 간행물은 안동대학의 연구소의 실적물 이외에도 영가 상록회의 「영가문화」, 예총 안동지부의 「전통과 예술」, 안동시 향토사연구회의 「향토안동」 등에 축적되고 있으며, 안동대학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대 부설 '안동문화연구소'는 안동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동문화 연속 강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의 인식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지역 특성과 연관된 연구기능은 지역사회의 결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Ⅵ. 大學의 社會的 봉사기능과 地域社會

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 도서관, 박물관, 동·식물원, 체육시설, 어학시설, 전산시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학시설의 사회적 봉사는 지역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교양교육의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동대학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비롯하여 전자계산소, 대학신문사, 대학 방송국, 출판부, 체육관, 종합문화회관, 온실, 역동서원 등의 부속시설이 있다. 본 대학 부속시설의 현황과 규정은 '안동대학교 요람(1992-1993)'을 참조한다.

안동대학 도서관은 교수·학생의 연구와 면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9년 안동초급대학의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인수받아 개관하였다. 도서관의 이용자는 교직원, 학생 및 관장이 허가한 자로 열람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인이 일정 기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 열람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현재에는 주로 졸업생이 이용하는 정도이며, 지역사회 주민이 자유로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 도서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박물관 역시 대학인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79년에 개관되었다. 개관 이후 박물관은 안동지역의 유적지 보존과 유적지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향토문화 계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박물관 관람은 관장의 허가사항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처럼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물관이 사회봉사 기능으로서 작용하자면, 대학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안동문화권의 고고, 역사, 고미술 등의 유형·무형 문화재를 정리하여 지역사 강의를 할 수 있는 '박물관대학'이 개설되면 각지의 문화 애호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교양교육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외의 대학 부속시설들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이 결여되고 있다.

한편, 안동대학에는 지역사회와 결합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회적 봉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결합도가 높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비롯한 농민기술연구원, 사회교육원 등은 2003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위시한 지역인사들의 협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활동이 긴요하다. 현대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직시할 때이다.

Ⅶ. 結 論

현대사회가 지식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대학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지역 지식 센터로서의 대학과 지역활동체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식 중심지 전략'은 고도의 기술시대를 맞이하여 의미있는 발전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관련성을 구명함에 있어서, 대학이 자리잡은 입지 유형에 따라

지역발전에 작용하는 영향력이 차이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주변부 낙후지역에 입지한 안동대학을 선정하여, 그것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1).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은 지난 20여년간 인구의 격감과 인구의 희소화로 인하여 한국에서 대표적인 과소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인구와 기능의 감소로 지역사회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지역은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보존된 정신문화의 고장이다.

2. 안동대학은 안동지역권의 교육기회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안동대학은 여성들에게 교육기회의 폭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또한, 이 대학은 농민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에게도 교육기회의 문호를 넓혀 줌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동대학 신입생의 절반 정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서 유입되며, 고향 부근에 입지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안동대학은 지역노동시장과의 결합도가 낮은 편이며, 안동권은 '고급인력의 손실자'의 처지에 놓임에 따라 두뇌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3. 대학의 연구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대상으로 대학연구소의 연구성과의 전이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발전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활동은 주로 토론회의 형식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연구기능과 지역사회간의 연대가 미약한 것 같다. 특히, 순수 과학의 연구가 주류를 이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력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업도 채택의 여력이 없는 것 같다. 나아가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을 결합시킬 제도가 없고, 상호보완성에 관한 욕구가 절실하지 않다. 대학연구활동과 지역문화와의 관계는 보다 원활하다. 연구활동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지역 주민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문화운동의 전개로 진전되고 있다. 연구기능이 지역특성과 연관될수록 지역사회와의 결합도가 더욱 높음을 증거하고 있다.

4.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자체 수요에만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미미하다. 더욱이 이 대학은 지역사회에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대학부속병원, 농민기술연구원, 사회교육원 등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대학의 기능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강도가 달랐으나, 대학은 지역발전의 핵심적 작용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더욱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할수록 지역사회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와 지식중심사회가 동시에 다가오는 오늘의 한국적 현실에서 보다 세분된 전이과정의 분석과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에서 대학과 지역간의 관계 연구가 계속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가 축적될 때, 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보다 정교한 분석 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附記: 이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답사에 참여한 석·박사과정생인 조영국, 구동회, 오상학, 이무용 군과 다수의 최신 논문을 우송하여 준 뮌헨공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생인 안영진을 비롯한 안동대학 및 안동지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參考文獻 >

경북교육청, 1994, 경북교육 통계연보.

경상북도, 1992, 경북통계연보.

권영섭, 1992,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金龍瞞, 1982, "敎育과 地域開發," 都市問題 第17卷 3號, 46-61.

金鍾喆, 1979, 韓國高等教育硏究, 培英社.
金鍾喆 譯, 1965, 教育과 經濟成長, 乙酉文化社.
南治鎬 외 2인, 1990, "안동지역권 산업육성전략," 안동개발연구, 7-75.
문태현, 1993,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본 지방행정 중심지 선정의 적정기준," 도청이전의 쟁점과 합리성의 재인식(지역 개발 토론회), 안동 청년회의소, 7-36.
박삼옥, 1992, "Science Parks; Problems and Strategies," 지역연구 제8권 2호, 27-40.
박삼옥, 1994, "리서치 파크 개발의 과제,"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서울대학교, 1-16.
朴英漢,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11, 1-19
朴在煜, 1989, "安東大學生의 進路問題에 對한 態度分析," 학생지도연구 제10편, 3-17.
裵天雄, 1987, "우리나라의 地域社會發展에 대한 社會敎育의 役割," 한국교육 제14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118.
서울대학교, 1994, 통계연보.
安京植, 1988, "地方分校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 大韓敎育 第3號 한국대한교육협의회, 11, 36-43.
안동권 발전연구소, 1991, 안동권 지역자료 편람(Ⅰ).
안동대학교, 1994, 안동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94-2003).
안동대학교, 1993, 통계연보.
안동대학교 교수 업적, 1993. 8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민속연구, 제1집-제4집, 1991-1994.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 연구소, 1992, 경북도청 이전의 합리성 추구(지역개발 정책토론회).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 연구소, 1993, 농산물 가공·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토론회).
안동대학교 요람, 1992-1993.
안동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지도연구, 제9집-제14집, 1989-1994.
안동대학 기초과학 연구소,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제1집-제4집, 1990-1993.
안동대학 부설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제1집-제14집, 1980-1993.
안동대학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안동개발연구, 제1집-제5집, 1990-1994.
안동대학 퇴계학 연구소, 퇴계학, 제1집-제5집, 1989-1993.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상공연감 '93-'94.
안동시, 1993, 안동통계연보.
柳殷秀, 1985, 地方移轉大學의 地域發展 效果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이희재, 1993, "경북 도청의 이전논의와 형평성," 도청이전의 쟁점과 합리성의 재인식(지역 개발 토론회), 안동 청년회의소, 39-59.
林承達, 1989, "地方大學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效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國土計劃, 제24권 제1호, 67-90.
임재해, 1993, "안동사의 민족사적 전개와 문화적 전통의 중심성," 도청이전의 쟁점과 합리성의 재인식(지역 개발 토론회), 안동 청년회의소, 63-118.
통계청, 1994, 지역통계연보.
Becker, W., 1994, "Bedeutung des universitären Wissenstransfer als regionaler Standortfaktor - Das Beispiel der Universität Augsburg,"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3, 489-501.
Brösse, U. & J. Emde, 1977, "Die regional-wirtschaftlichen Ausgaben der Technischen Hochschule Aachen,"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282-292.
Fürst, D., 1984, "Die Wirkung von Hochschule auf ihre Region. In Wirkungsanalysen und Erfolgskontrolle," in *der Raumordnung, Forschungs und Sitzungsberichte der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154, Hanover, 135-151.
Geipel, R., 1965, *Sozialräumliche Strukturen des*

Bildungswesens, Verlag Moritz Diesterweg.

Geissler, C., 1965, "Hochschulstandorte Hochschulbesuch. Regionale Herkunft und Bildungswanderung der deutschen Studierenden," *Einzugräume der wissenschaftlichen Hochschulen*, Hannover.

Giese, E., 1987a, "Hochschulen als Gegenstand Regionalwissenschaftlicher Forschung," in Giese, E.(Hg.), *Aktuelle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Giessener Geographische Schriften* 62, Gissen, 1-24.

Giese, E., 1987b, "Regionalwissenschaftliche Bedeutung von Ho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chland," in Giese, E.(Hg), *Aktuelle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Giessener Geographische Schriften* 62, Gissen, 25-50.

Küppers, G. & J. Sonntag, 1977, "Empirische Analysen zu den regionalen Effekten des Hochschulbaus am Beisipiel Saarbrücken, Kaiserslautern, Mannheim und Heidelberg,"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253-265.

Leib, J., 1977, "Der kommunal und regionalenwirtschaftliche Einfluss einer Universität am Beispiel Giâen und Mittel-Osthessen," In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267-281.

Mayr, A., 1979, "Universität und Stadt. Einstadt, wirtschafts und sozialgeoraphischer Vergleichalter und neuer Hochschulstandorte in der Bundersrepublik Deutschland," In *Münsterche Geographische Arbeiten* 1, Paderborn.

Mayr, A., 1993, "Niederländishe Universitäten als Impulse der Stadt und Regionalentwicklung,"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1, 67-85.

Ott, T., 1993, "Regionale Effekte einer Neugründung der Universität Erfurt," *Erfurter Geographische Studien*, Bd.1, 161-182.

Wagner, A., 1987, "Beiträge einer traditionellen Universität zur industriellen Innovation," in *Tübinger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Abhandlunge* 30, Tübingen.

Webler, W. D., 1984, "Grenzen und Entwicklungsmoglichkeiten im Verhältnis von Hochschulen und regionaler Umwelt," in Webler, W. D.(Hg), *Hochschule und Region. Wechselwirkungen, Bielefelder Beiträge zur Ausbildungsforschung und Studienreform* 1. Weinheim, 347-377.

Journal of Geography 25(1995. 2), 1-18.

The Impact of the Location of Universit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Young-Han Park*

Summary

In the age of fast increasing competition, policy-makers as well as scholars are looking for new concepts by identifying an indigenous potential for local development. As a result a knowledge centre strategy comes to the fore as a new alternative for local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is strategy, particular significance has to be attributed to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on the local level. Especially the university may be the only innovation center for local development in peripheral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in the periphery region and evaluates the role of university for local development. For case study, Andong university, which is located in northern region of Kyoungsangpookdo province, one of periphery region in Korea, is selected. The region preserves much cultural tradition and historical inheritance. But the region has been undergoing the rapid depopulation and is one of thinly populated areas in Korea.

Andong university improves the educational opportunity of local residents. More than half of students come from northern region of Kyoungsangpookdo province. But regional labor market has not provided a sufficient job opportunity for university graduates. Consequently the region has been suffering from the loss of innovative human capital.

The knowledge transfer from university to local enterprises scarcely takes place. It is ascribed largely to the mismatch between university's research activities and local industrial structure. Most of firms in the region are small traditional ones and do not make much efforts to innovate. Even so, university's staffs and local government can't escape from the blame. University's staffs have comparatively little contact to practical applications in research and are occupied with basic research which can't be directly available for local firm. Local government doesn't try to establish some institutional measures for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university and local firms. In conclusion, there ar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barriers to the knowledge transfer. But Andong university makes much non-economic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y. Many researches has been conducted to advance local culture and establish local cultural identity. Many university's staffs cooperate with local residents in local cultural movement.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act of the Location of Universit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s facilities may be important assets to serve local community. Andong university doesn't have facilities such as university hospital, job training centre and social education center which are needed mostly by local residents. And its existing facilities such as library, museum, gymnasium and etc, serve only university's members. It makes the university 'an island in local community'

Keywords: university's role in local development, knowledge centre strategy, supply of high-skilled workforce, transfer of knowledge or technology, university's facilities